



2025
중2-1
천재(박)

2025 중2-1 국어 천재(박) | 1(1) 엄마 걱정 내신형 기출 문제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직전 보강 유형

「엄마 걱정」의 화자에 대해 묻는 문제, 학습활동에 제시된 「딸기」와 비교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.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과 표현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【1~5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열무 삼십 단을 이고
시장에 간 우리 엄마
안 오시네, 해는 시든 지 오래
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
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
엄마 안 오시네,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
안 들리네, 어둡고 무서워
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
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

아주 먼 옛날
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
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
- 기형도, 「엄마 걱정」 -

(나) 오십 리 짐차에 실려 왔어유
멀미도 가시기 전에
낯선 거리 쌔댕기면서
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유
목마름은 이냥저냥 견딜 수 있슈
흔디, 불기짝 쥐어뜯으며
살결이 거칠다느니
단맛이 무르다느니 허진 말어유
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유

이만한 몸띵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
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유

그러니께 지폐 한 장으로다

우리 식구 사돈에 팔촌까지 두루 사 가는 선상님들
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

- 이재무, 「딸기」 -

1. (가)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집에 훌로 있었던 경험이 있다.
- ② 이 시의 화자는 어른이 된 '나'이다.
- ③ 1연에서 화자가 있는 공간은 방이다.
- ④ 힘들었지만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.
- ⑤ 화자의 엄마는 시장에 열무를 내다 파는 일을 하였다.

2. (가)의 화자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?

- ① 나 - 어린 '나'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.
- ② 나 - 어른이 된 '나'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.
- ③ 나 - 어린 '나'가 자신의 행복했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.
- ④ 엄마 - '엄마'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.
- ⑤ 엄마 - '엄마'가 어린 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.

3. (가)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화자가 시의 곁에 드러난다.
- ② 화자는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.
- ③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감추고 있다.
- ④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한다.
- ⑤ 화자는 순수함을 간직한 어린아이이다.

4. (가)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화자가 2명 등장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② 어른이 된 화자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.
- ③ 화자가 곁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 숨겨져 있다.
- ④ 엄마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주된 정서를 이루고 있다.
- 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다.

5. (가), (나)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(가)의 화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.
- ② (가)의 화자는 편안하게 엄마를 기다린다.
- ③ (나)의 화자는 사투리를 쓰는 농부이다.
- ④ (나)의 화자는 농작물의 참된 가치를 알아주기 바란다.
- ⑤ (가), (나)의 화자 모두 작품 밖에서 관찰하고 있다.

신유형

「엄마 걱정」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,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묻는 문제, 학습활동에 제시된 「그림자」, 「딸기」, 「엄마 걱정」을 재구성한 지문과 비교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.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과 표현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【6~9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⑦열무 삼십 단을 이고

시장에 간 우리 엄마

안 오시네, ⑨해는 시든 지 오래

⑩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

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

엄마 안 오시네, ⑪배춧잎 같은 밭소리 타박타박

안 들리네, 어둡고 무서워

금간 창틈으로 ⑫고요히 빗소리

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

아주 먼 옛날

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

ⓐ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

- 기형도, 「엄마 걱정」 -

(나) 열무 삼십 단을 이고
시장에 갔었지

빈방에 훌로 있을 아이

밥은 제대로 먹었을까?

혼자 훌쩍거리며 숙제를 하고 있으려나?

집에 가야 하는데

남은 열무 몇 단이 발목을 잡던

아주 먼 옛날

지금도 내 눈시울을 붉히는

그 시절, 내 마음의 빛

6. (가)의 화자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유년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.
- ② 해가 질 때까지도 안 오는 엄마가 걱정되고 무서웠어.
- ③ 빈방에서 훌로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나를 생각하면 슬퍼.
- ④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웠고, 외롭고 서러웠던 기억이 있어.
- ⑤ 어린 나를 혼자 두고 늦게 돌아오셨던 엄마가 지금도 너무 원망스러워.

7. ①~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①: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의 힘든 삶을 보여 준다.
- ② ②: 엄마가 시장에 간 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낸다.
- ③ ③: 쓸쓸하고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찬밥에 빗 대었다.
- ④ ④: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빗댄 표현이다.
- ⑤ ⑤: 엄마가 집에 오지 못하는 상황적 이유가 된다.

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

아주 먼 옛날

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
그 시절, ⑤내 유년의 윗목

- 기형도, 「엄마 걱정」 -

10. 윗글과 같은 종류의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생략되고 함축된 언어를 쓴다.
- ② 운율을 가지고 있어서 읽을 때 리듬이 느껴진다.
- ③ 글쓴이와 화자는 항상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.
- ④ 짧은 형식 속에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낸다.
- ⑤ 심상을 통해 독자가 시의 내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.

8. ①과 가장 유사한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?

- ①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다.
- ②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.
- ③ 봄바람에 빨래들이 춤을 춘다.
- ④ 나무들이 부지런히 목욕 중이다.
- ⑤ 보름달처럼 환한 아이의 웃음이다.

9. (나)는 (가)를 재구성한 작품이다. (가)와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(나)의 화자는 (가)의 엄마이다.
- ② 두 시의 내용과 주제는 동일하다.
- ③ (나)의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.
- ④ (가), (나)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.
- ⑤ (나)에는 힘든 생활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.

11. 다음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물음: 이 시에서 '엄마'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?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

답변: _____.

- ① '엄마'는 해가 저물도록 시장에서 열무를 팔았을 것이다.
- ② '엄마'는 열무를 빨리 팔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다.
- ③ '엄마'는 '아이'를 집에 혼자 두고 와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.
- ④ '엄마'는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가서 파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.
- ⑤ '엄마'는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 '아이'에게 열심히 숙제하라고 격려했을 것이다.

【10~12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열무 삼십 단을 이고
시장에 간 우리 엄마
안 오시네, ①해는 시든 지 오래
나는 ②찬밥처럼 방에 담겨
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
엄마 안 오시네, ③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
안 들리네, 어둡고 무서워
금간 창틈으로 ④고요히 빗소리

12. ①~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해가 지는 것을 표현하였다.
- ② ㉡: '나'의 처지를 '찬밥'에 빗대었다.
- ③ ㉢: '엄마'의 발소리를 '배춧잎'에 빗대었다.
- ④ ㉣: 청각적 심상이 느껴진다.
- ⑤ ㉤: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을 따뜻한 '윗목'에 빗대었다.

【13~17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열무 삼십 단을 이고
시장에 간 우리 엄마
안 오시네, 해는 시든 지 오래
나는 ㉠찬밥처럼 방에 담겨
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
㉡엄마 안 오시네, ㉢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
안 들리네, ㉣어둡고 무서워
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
㉤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

아주 먼 옛날
㉤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
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
- 기형도, 「엄마 걱정」 -

(나) 오십 리 짐차에 실려 왔어유
멀미도 가시기 전에
낯선 거리 쌔댕기면서
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유
목마름은 이냥저냥 견딜 수 있슈
현디, 볼기짝 쥐어뜯으며
살결이 거칠다느니
단맛이 무르다느니 허진 말이유
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유

이만한 몸띵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
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유
그러니께 지폐 한 장으루다
우리 식구 사돈에 팔촌까지 두루 사 가는 선상님들
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
- 이재무, 「딸기」 -

13. (가)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이다.
- ②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.
- ③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.
- ④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.
- 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.

14. ㉠~㉤ 중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를 담은 표현이 아닌 것은?

- ① ㉠
- ② ㉡
- ③ ㉢
- ④ ㉣
- ⑤ ㉤

15. 다음 중 ㉤과 같은 심상이 드러난 표현은?

- ① 알락달락 얼룩진 산새알
- ②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
- ③ 매화 향기 흘로 아득하니
- ④ 은은하게 퍼지는 새벽 종소리
- ⑤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

16. (나)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이유
- ② 농작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
- ③ 농작물을 키워내는 자연의 위대함
- ④ 농작물의 값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
- ⑤ 농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자세

정답 및 해설

1. 정답 ④

2연에서 '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'에서 화자가 유년 시절을 떠올릴 때 슬픔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느꼈음을 알 수 있으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지는 알 수 없다.

- ① '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'를 통해 알 수 있다.
- ② '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'을 통해 알 수 있다.
- ③ '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'를 통해 알 수 있다.
- ⑤ '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'를 통해 알 수 있다.

2. 정답 ②

2연에서 '아주 먼 옛날 /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/ 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'을 통해 어른이 된 '나'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- ① 2연을 통해 (가)의 화자가, 어린 나이의 화자가 아닌 어른이 된 상태의 화자임을 알 수 있다.
- ③ 1연의 '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', '어둡고 무서워', 2연의 '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' 등의 시어를 통해 '나'가 자신의 행복했던 기억이 아닌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- ④ 윗글에서 '엄마'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.
- ⑤ 윗글에서 '엄마'가 어린 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.

3. 정답 ①

윗글에서 '나는 찬밥처럼~', '내 눈시울을~', '내 유년의~'와 같은 시어를 통해 화자가 시의 곁에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.

- ② 윗글에서 화자는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을 뿐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.
- ③ '어둡고 무서워' 등의 시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- ④ 윗글에서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

있음이 드러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.

- ⑤ 2연을 통해 화자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.

4. 정답 ②

2연을 통해 어른이 된 화자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- ① 윗글의 화자는 '나' 1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윗글에서 '나는 찬밥처럼~', '내 눈시울을~', '내 유년의~'와 같은 시어를 통해 화자가 시의 곁에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.
- ④ 윗글에서 엄마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나타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.
- ⑤ 윗글은 '나'가 가난하고 외로웠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.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.

5. 정답 ④

(나)의 화자는 '이만한 몸땅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/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유 / 그러니까 지폐 한 장으루다 / 우리 식구 사돈에 팔촌까지 두루 사가는 선상님들 /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것슈'를 통해 농작물의 참된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- ① (가)의 화자는 '나' 1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1연을 통해 (가)의 화자가 엄마를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.
- ③ (나)의 화자는 '딸기'이다.
- ⑤ (가), (나)의 화자 모두 작품 안에 위치하여 이야기하고 있다.

6. 정답 ⑤

윗글에서 화자가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.

- ① 2연에서 '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/ 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'을 통해 유년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.
- ② 1연에서 '안 들리네, 어둡고 무서워'를 통해 화자는 엄마가 걱정되고 무서웠다는 말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.
- ③ 1연에서 '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', '어둡고 무

서워’, ‘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’, 2연에서 ‘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/ 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’ 등을 통해 빈방에서 훌로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나를 생각하면 슬프다는 말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.

④ ‘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’를 통해 어린 시절 ‘나’의 형편이 어려웠으며 ‘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’을 통해 유년 시절의 ‘나’가 외롭고 서러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.

7. 정답 ⑤

ⓐ은 ‘나’의 외로움이 고조되는 장면으로, 엄마가 비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.

① Ⓛ은 ‘열무 삼십 단을 이고’ 시장에 간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② Ⓜ은 해가 지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, 적절하다.

③ Ⓝ은 외롭고 쓸쓸한 ‘나’의 처지를 ‘찬밥’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, 적절하다.

④ Ⓞ은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‘배춧잎’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, 적절하다.

8. 정답 ①

ⓐ ‘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’에는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‘윗목’에 빗댄 은유법이 사용되었다. 은유법은 하나의 대상을 또 다른 대상으로 빗대는 비유법으로, 주로 ‘A는 B이다.’, ‘B인 A’, ‘A는 B’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다. 이에 따르면 ‘진달래는 분홍 거풀이다.’는 은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므로 적절하다.

② ‘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’에는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.

③ ‘봄바람에 빨래들이 촘을 춘다’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.

④ ‘나무들이 부지런히 목욕 중이다’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.

⑤ ‘보름달처럼 환한 아이의 웃음이다’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.

9. 정답 ①

(가)의 ‘열무 삼십 단을 이고 / 시장에 간 우리 엄마’와 (나)의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갔었지’ 등을 통해 (나)의 화자가 (가)의 엄마임을 알 수 있다.

② (가)의 주제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이지만 (나)에서는 화자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지 않으므로 두 시의 내용과 주제는 동일하지 않다.

③ (나)에서 ‘지금도 내 눈시울을 붉히는 / 그 시절, 내 마음의 빛’을 통해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.

④ (가), (나)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.

⑤ (나)는 훌로 남겨 두고 온 아이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. 힘든 생활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.

10. 정답 ③

윗글의 갈래는 ‘시’로, 글쓴이와 화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.

① 시는 생략되고 함축된 언어를 사용하므로 적절하다.

② 시는 운율을 가지고 있어서 읽을 때 리듬이 느껴지므로 적절하다.

④ 시는 짧은 형식 속에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내므로 적절하다.

⑤ 시는 심상을 통해 독자가 시의 내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므로 적절하다.

11. 정답 ⑤

윗글에서 ‘엄마’가 ‘아이’에게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 ‘아이’에게 열심히 숙제하라고 격려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.

① 1연의 ‘열무 삼십 단을 이고 / 시장에 간 우리 엄마 / 안 오시네, 해는 시든 지 오래’를 통해 ‘엄마’가 해가 저물도록 시장에서 열무를 팔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.

② 시장에 간 ‘엄마’는 열무를 빨리 팔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.

③ 시장에 간 ‘엄마’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와서 마음이 조급하고 아이가 걱정되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.

④ 시장에 간 ‘엄마’는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가서 파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.

12. 정답 ⑤

Ⓐ은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‘윗목’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① Ⓛ은 해가 지는 것을 시든다고 표현한 것으로, 적절하다.

② Ⓜ은 ‘나’가 ‘찬밥’처럼 방에 담겨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.

③ Ⓝ은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.

④ Ⓞ은 ‘빗소리’와 같이 청각적 심상이 느껴지므로 적절하다.

심상이 드러나고 있다. ‘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린 옷 자락을 느끼는 것은’ 또한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.

① ‘알락알락 얼룩진 산새알’에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② ‘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’에는 시각의 촉각화가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③ ‘매화 향기 흘로 아득하니’에는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④ ‘은은하게 퍼지는 새벽 종소리’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13. 정답 ①

(가)의 화자는 어른이 된 상태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② 2연의 ‘아주 먼 옛날’을 통해 1연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2연에서 시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③ (가)의 화자는 어른이 된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④ ‘안 오시네’, ‘안 들리네’와 같이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⑤ ‘고요히 빗소리’ 등의 표현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(가)의 화자가 느꼈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16. 정답 ⑤

(나)의 ‘이만한 몸땅이 ~ 후하게 쳐주셔야겠슈’를 통해 (나)가 ‘농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자세’를 말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.

① (나)에서 ‘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이유’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.

② (나)에서 ‘농작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’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.

③ (나)에서 ‘농작물을 키워내는 자연의 위대함’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.

④ (나)에서 ‘농작물의 값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’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.

14. 정답 ③

‘배춧잎 같은 발소리’는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‘배춧잎’에 빗댄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① (가)의 화자의 주된 정서는 외로움과 슬픔이다. ‘찬밥처럼 밥에 담겨’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‘찬밥’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.

② ‘엄마 안 오시네’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화자의 외로움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④ ‘어둡고 무서워’에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무서움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⑤ ‘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’에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17. 정답 ③

‘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’에서 ‘천천히’는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슬픔을 완화한다고 볼 수 없다.

① ‘삼십 단’이라는 시어를 통해 엄마의 고단한 삶과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② ‘찬밥’은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④ ‘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’은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‘배춧잎’에 빗대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⑤ ‘내 유년의 윗목’은 외롭고 힘들었던 ‘나’의 유년 시절을 ‘윗목’에 빗댄 표현이므로 적절하다.

15. 정답 ⑤

Ⓐ ‘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’에서는 촉각적

18. 정답 ②

‘빗소리’는 청각적 심상이 느껴지며 ‘나’의 외로움이 고조되는 부분이므로 적절하다.

① 1연에서 열무를 파는 상인들의 희망찬 분위기를